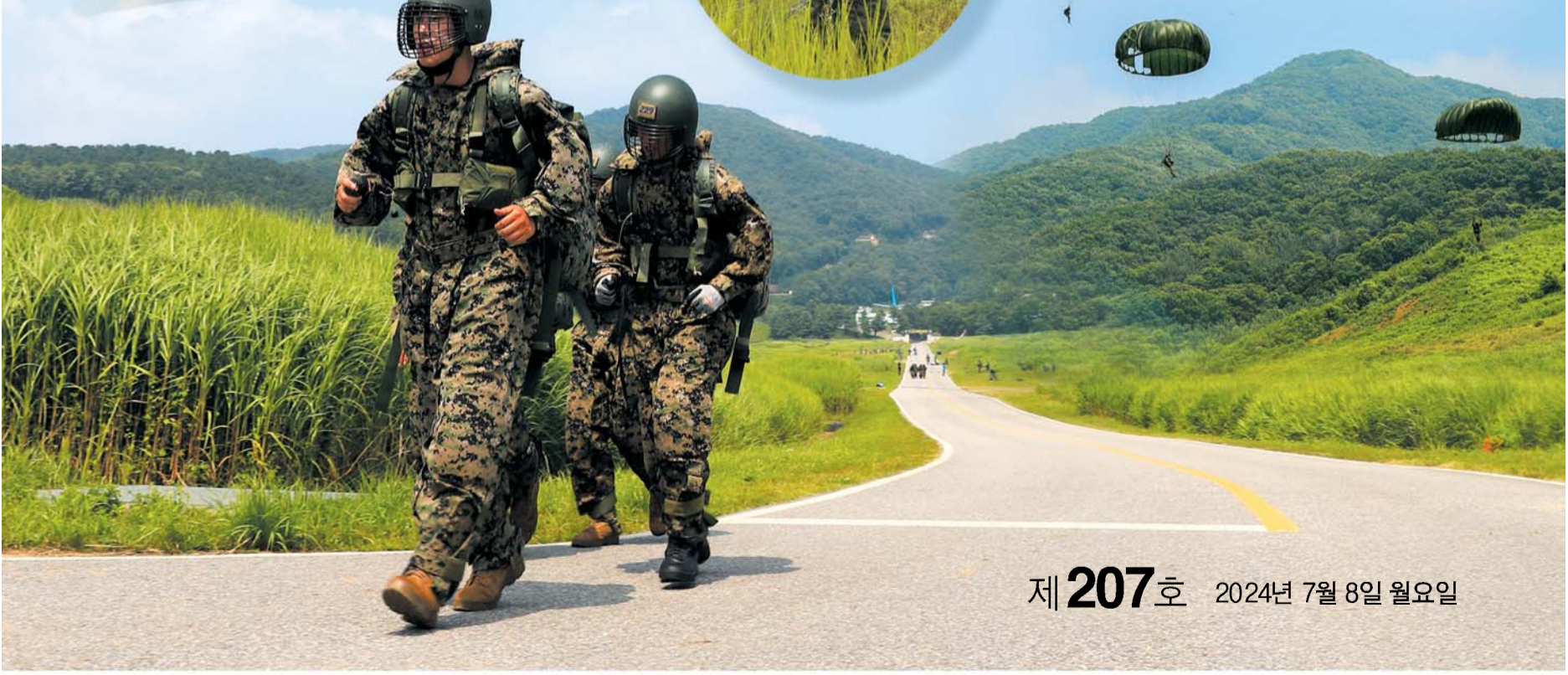


# 충성대신보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제 207호 2024년 7월 8일 월요일

홈페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충성대신문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07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오세준, 상병 임은혁, 채호준, 국방일보 이경원 기자



# 굳건한 호국정신, 우리가 이어나가겠습니다!

##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학교 충혼비 및 영천 호국원 참배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진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생도들이 묵념을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학교 장(소장 이용환)을 비롯한 주요직위자, 대구 지역 동분회 40여 명이 교내 충혼비를 참배했다.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조국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과 모교 출신 순직 선배님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어서 60기, 61기 생도 700여 명은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학교 장(소장 이용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모든 장병과 사관생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무관 길진규



학교장이 교내 충혼비에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배하고 있다.

## 故 고승완·이민성 중위 순직 9주기 추모 행사



추모행사참석자들이故 고승완·이민성 중위 흉상앞에서 경례를 하고있다.

지난 5월 2일, 차성도광장에 위치한 故 고승완·이민성 중위의 흉상 앞에서 9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다.

故 고승완·이민성 중위는 2015년 4월 28일 육군보병학교에서 초군반 교육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순직 9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故 고승완 중위의 부모님과 생도대장을 비롯한 생도여단 전 간부, 사관생도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들의 약력 보고, 헌화 및 분향, 묵념, 헌시낭독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특히, 당시 보병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던 50기 동기 7훈육장교 김병관 대위가 흉상에 새겨진 ‘묻지 말아라’ 헌시를 낭독할 때에는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생도대장(준장 김민식)은 “故 고승완·이민성 중위가 비록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군인정신으로 가득했던 그 영혼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주무관 길진규

##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의 시간 마련

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 유공자 영천지회와 영천시 재향군인회원을 학교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관생도들은 영천지역 내 6.25전쟁 참전용사 20가정을 방문해 부대에서 준비한 쌀과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전달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6.25전쟁 참전용사 안병천 용은 “요즘 젊은이들은 6.25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도들이 기억해 주고 찾아와줘 정말 고맙다”며, “열심히 훈련받고 훌륭한 장교가 되어 선배 전우들이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3학년 강성찬 생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최정예 육군 장교가 되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령 한상미



생도들이 6.25 참전용사인병천 용(상, 이흥우 용(하) 가정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장교의 꿈 키우는 충성대 사관캠프

경북지역 고등학생 대상 올해 첫 사관캠프 실시



충성대 사관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단체 사진

지난 5월 17일, 경북지역 고등학교(경산고, 대경문화예고, 경제예일고, 영천여고)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충성대 사관캠프'를 진행했다.

충성대 사관캠프는 미래 대한민국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장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 기수에 걸쳐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학교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예비 장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생도 생활을 경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장애물달리기, 전장순환운동 등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군악대의 안보콘서트를 통해 안보와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영천여고 2학년 임예지 학생은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부족한 부분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 꿈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소령 한상미

## 육군3사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술교류 협약 체결 "생도 전문성 높여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것"

학교가 특성화 공과대학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협력 확대에 나선다. 학교장(소장 이용환)과 금오공대 총장(곽호상)은 5월 21일 학교 회의실에서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사관생도와 대학생 그리고 양 기관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학교장과 생도대장, 교무기획실장, 교수부장, 공학처장, 기계공학과장, 대외협력과장이 참석했으며, 금오공대는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스마트공장융합전공 교수,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 인적·물적·행정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로 교육, 연구 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미래 육군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공동연구 활동, 학생 및 교직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도들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령 한상미



학교장(소장 이용환)과 금오공대 총장(곽호상)의 체결 후 기념사진

## 군 최초 뇌신경과학 박사 심리학과 교수 김대은 소령



교수부 심리학과에서 근무 중인 육군 장교가 군 최초로 "뇌신경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 요소가 공존하는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군인의 행동 패턴과 뇌신경과학적 원리를 연결하기 위해, "사회적 계급 맥락에서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뇌신경학적 기제 연구" 주제로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이학 박사(뇌신경과학) 학위를 취득한 김대은소령이 그 주인공이다.

김 소령은 자신의 연구 주제를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 발표하여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였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Journal of Neuroscience"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사 학위 기간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등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 소령은 "현재 美 육군연구소에서는 인간의 뇌 활동을 측정 및 분석하여 전투 요원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전투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앞으로 실제 전투 현장에서 전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뇌신경과학적으로 접근 및 연구를 진행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육군 육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학교장(소장 이용환)과 프랑스 육사 교장소장 에르베 드 쿠레쥬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양측 학교장을 비롯한 사관생도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육군3사관학교-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업무협약

프랑스 육사 학교장 등 200여 명 방문, 생도 상호 교환학기 교류 협약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이하 프랑스 육사) 생도 200여 명이 학교를 방문, 상호 교류 및 韓·佛 간 우호를 증진했다.

학교는 생도 국외 위탁교육 기회를 통해 우수자원 유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1년부터 군사교류 회의, 작년 11월에는 학교장이 직접 프랑스 육사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프랑스 육사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육사와 생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생도 상호 교환학기 교류 및 기타우호 증진 및 협력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과 교류 행사를 통해 향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한 행사 간에는 사관생도와 프랑스 육사 생도들을 매칭, 안내요원으로 편성했다. 프랑스 육사 생도들은 사관생도 생활관인 중용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스포츠 교류 행사, 경주 박물관 관람 등 문화탐방을 통해 생도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호를 증진했다. 이밖에도 6일에는 군악대가 진행하는 안보콘서트를 관람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리랑, 태극기 휘날리며 OST, 애국가 ROCK 버전, 아름다운 나라, 소나무 등을 통해 역사를 알아보고, 뉴진스의 Ditto, OMG 등 K-pop을 통해 문화를 체험했다.

소령 한상미

## 제2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우승

‘스포츠 참여형’ 분야 드론 축구 2년 연속 우승  
‘군사적 활용’ 분야 폭탄투하 준우승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작전사령부와 경운대·국립금오공대가 공동 주관하고 구미시와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경북대가 후원하는 ‘제2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가 경운대학교에서 열렸다.

드론봇 전투경연대회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활용’ 분야 5개 종목(폭탄투하·감시정찰·시드론·기체창작·로봇챗린지)과 ‘스포츠 참여형’ 분야 3개 종목(드론배틀·드론레이싱·드론축구) 총 8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연대회에는 군인부 36개 팀 90여 명, 민간부 45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민간부로 참가한 생도들은 드론 축구 종목에서 2023년 제1회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 폭탄투하 종목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드론 축구 참가생도 : 60기(서덕교, 유인서, 이정술, 전상훈), 61기(신민석, 장지성)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에 참가한 인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폭탄투하 참가생도 : 60기(김승현), 61기(김동영, 김유정, 박성민, 이정원, 최현민)

이번 대회에 참가한 60기 이정술 생도는 “작년에 우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회를 준비했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지원해주신 지도교수님, 훈육관님, 드론교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대 대 나 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 들호자의 동기부여

5월 초 연휴 기간에 2차 홍보출장 겸 특박이 주어졌다. 쉬는 날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평소라면 어두워야 할 꽃집이 모여있는 거리가 밝았다. 꽃집 밖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전시되어있고 사람들도 제법 북적였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평소에 일찍 주무시던 부모님은 그날따라 주무시지 않았다. 부모님과 학교 이야기를 하며 그간의 밀려있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데, 어머니의 눈에 조금씩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남들처럼 호화로운 어버이날 선물은 필요 없고 우리 A가 지금처럼 꿈을 위해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값진 어버이날 선물이야.”

‘아...! 오늘 어버이날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선물 준비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온 거야. 나도 선물 있어!”

너무 부끄러웠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과 품위유지비가 들어오는 대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소고기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의 동기부여는 언제나 부모님이다. 내년 어버이날은 꼭 좋은 선물로 보답해 드려야겠다

## 📣 남우새

오늘도 어김없이 생도대에 아침 햇살과 함께 새들의 짹짹 소리가 들려온다. 많은 새들의 짹짹 소리 중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귀엽고 예쁜 새들에게 날리는 수새들의 플러팅 소리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수새들의 조공을 받기 위해 여왕이 되고자하는 예쁜 새가 있다. 열심히 조공을 바치는 수새들이 있기에 여왕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여왕새는 모든 수새들의 플러팅 공세로 인해 카톡방이 불타고 있다. 한 마리씩 선물을 챙겨주고, 사랑스러운 목 소리를 들려준 덕에 수새들의 더욱더 강한 플러팅 공세가 시작된다

## 📣 기쁨이와 따분이

안녕하십니까? 이 신문을 보고 있을 많은 충성대 식구 여러분들! 저희는 기쁨이와 따분이입니다. 이 호칭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것은 인사이드아웃2라는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생도대 인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중 한 명인 버럭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낼까 합니다

버럭 씨에게(24-1차 생활관 식구)

버럭 씨, 반가워요. 사실 이 별명을 듣게 된다면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부정하고 있겠지만요 버럭 씨와 함께 24-1차 생활관 식구를 하게 되었을 땐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받지도 않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버럭 씨, 당신을 처음 생활관에서 마주했을 때 당신은 아주 바쁘게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게을렀으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한 당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넉 달이 되던 무렵 어느 순간 쌓여있는 먼지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물론 버럭씨는 포기했겠지만셋 다 행복했으니까요~!

버럭 씨를 생각하면 자꾸만 빨간색을 띠던 공기청정기가 떠오릅니다. 버럭씨, 당신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친구 공기청정기는 늘 당신의 화염방사기에

맞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당신이 떠남 동시에 파란색 불빛을 띠는 걸 보며 느꼈습니다. ‘너도 이제 해방이구나’

위에까지 디스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버럭씨 당신의 잔소리가 그리워요. 우리 참 재밌었잖아요. 매일 밤 웃고 떠들고 시험 기간도 웃고 떠들고, 서로가 슬플 때도 웃고 떠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떠들고.

그게 1차를 살아간 힘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방이 바뀌어 우리 세 명이 흩어졌지만 같은 중대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한 우리 버럭씨!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만들며 생도대 생활 살아가요!

## 📣 유격, 공수 꿀팁!

61기 생도들은 다가오는 하계군사훈련 동안 유격훈련을 간다. 걱정되는 마음에 선배들과 야식을 먹을 때 유격 꿀팁을 알려달라고 한다.

A: OO생도님, 유격훈련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꿀팁이 있습니까?

B: 야. 너네 막사에서 잔다면서 무슨 꿀팁이야. 그게 유격이나? 수학여행 가는 거지!

60기 생도들은 다가오는 공수훈련에 점점 초조함을 느끼고 임관한 선배 장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수훈련 꿀팁에 대해 묻는다

B: OO소위님, 공수훈련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물건이나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C: 야. 6월에 시원하게 공수하는데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가서 힘들다고 열외하면 어디가서 내 후배라고 말하지마!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은 매년 이어지는 것 같다

## 📣 어김없이 나타난 응졸 공부법

저공비행을 달리는 생도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기말고사에서 위협이 느껴지기 전까지 공부를 참는다. 저공비행하는 생도들은 공부하는 생도에게 이른바 ‘뒷공부’, 생활관에서 저녁에 공부하는 행위를 참견하려는 목적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

A: 군사영어 공부했어? 다른 군사필수과목 공부했어?

B: 기말 범위가 넓지 않지만, 조금씩 정리해야 시험 전날에 편할 것 같아서 정리는 해놨어.

A: 이야~ 꼭 너가 1등해라ㅋㅋㅋ

B: ?

[기말고사하루 전]

A: B야, 혹시 군사영어 정리한 거 있을까? 나 진짜 과락 위험이야.

B: ?

생도대는 공부하는 생도들을 견제하는 응졸한생도가 존재한다. 공부를 안 하는 본인을 탓하기보다는 공부하는 생도들을 시기한다. 그러다 시험 직전이 되면 과거 언행을 잊어버리고 물어본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 푸른 빛을 머금은 충성대 KAAY-DAY

60기 이주형 강준성, 61기 이에 찬기자생도

학교 생도들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지난 5월의 봄기운이 완연했던 KAAY-DAY의 밤을 기억할 것이다. 푸른 빛을 머금은 충성대의 하늘과 허를 내두를 만큼 뜨거웠던 생도들의 열정으로 우리의 첫 축제는 더욱더 뜨거워져 있었다.

행사는 양일로 진행되었고, 1일 차에는 생도들과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2일 차에는 중앙동기회 주관으로 전 생도 단합 활동이 진행되었다.

## 첫 KAAY-DAY를 기획하면서

KAAY-DAY는 원래 생도의 날이라는 육군사관학교의 전반기 고정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학교에 맞게 재탄생시킨 축제다. 김현준 60기 중앙동기회 회장은 “지난 3월에 생도대 주요 지휘관님과 소대, 중대, 5부회 등 부서별로 건의사항을 조사했던 것을 시작으로 행사 기획이 시작되었다”라며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이벤트

1일 차, 우리는 봄바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생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천천히 즐겼다. 생도들의 다양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등 끼를 보여주고 뒤를 이은 초청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 첫째 날이 마무리됐다.

2일 차에는 문화체육대전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중대별로 단합하여 선배와 후배 사이를 승리라는 목적을 함께 공유하며 화합하게 할 수 있었다. 이후 체험 부스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도 보고, 각종 체험을 즐겼다. 더불어 음악에 누구보다 진심인 군악대 용사들의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서도 역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마전



줄다리기

“ 행사에 참가한 생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합력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동시에 금요일 외박권과 생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상품으로 준비되었기에 행사에 더욱 집중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호평했다.”



런닝맨

계주

## 60기의 흥樂(희락) 김지수 생도, 자신의 끼로 행사를 뒤집어

◎ KAAY-DAY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장기자랑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선곡한 노래는 어떤 이유로 선곡했는지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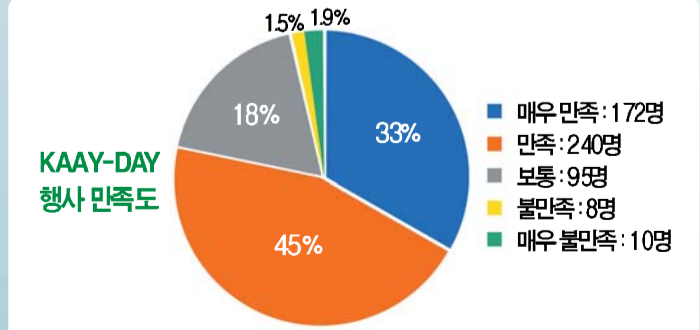
▲ 김지수 생도: 저는 과거부터 무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적절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수대학을 다니면서도 나만의 끼를 방출할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었지만, 코로나로 매년 아쉬움만 느꼈습니다. 무대를 본다고 한들 매년 발라드나 댄스였고, 진부함에 단조로움을 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 이랑 가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먼저 잘못된 만남은 원래 충성제에 하려고 했던 곡인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곡들 모두 따라부르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며 관객들과 소통을 즐기기에 적합한 노래라 생각했고, 좋은 반응 덕에 저에게 잊지 못하는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공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공연을 즐기는 노하우가 있나요?

▲ 김지수 생도: 여러분들의 환호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를 알아보는 모두가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이대 팔' 이라는 곡을 준비하던 당시, 이 곡을 사람들이 좋아해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의 호응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꼈습니다. 이런 남몰래 가지고 있던 고충은 처음 말해봅니다. (웃음)

◎ 항상 반겨주는 우리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축제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반갑게 인사해주며 알아봐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주신다면 똑같이 반갑게 인사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대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웃음)



## 꺼지지 않았던 열기 우리 생도들은 이번 축제에 호평

설문 참여 인원 (3학년: 279명 4학년: 246명) / 성별 (남성: 449명 여성: 76명)

꿈만 같았던 KAAY-DAY의 추억을 뒤로하고 생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60기 생도들에게는 공수훈련이, 61기 생도들에게는 유격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낼 것이다. 또한, 버텨낸 인고의 시간이 자신들에게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아 다음에 올 충성제의 뜨거움을 열정이라는 꽃으로 피워낼 것이다.



# 생도, 교수의 서재를 탐방하다!

60기이 주형, 강준성, 61기이에 찬기자생도

올해 충성대신문에서는 생도들의 추천을 받은 교수 4명의 서재를 열람하며, 각호에 선정된 교수에게 도서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책의 내용과 후기를 생도들의 눈높이로 설명하여, 수업 간 공적인 사이에서 말할 수 없었던 교수님의 취향을 공유하려고 한다.

교수 선정 기준은 지난 5월 21일부터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평소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했던 교수 4명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207호에서는 생도들에게 지적 경이로움으로 마성의 매력을 뽐내시는 **법정학과장인 강민식 교수의 서재**를 열람할 계획이다.



### Q 교수님의 서재 속 다양한 책 중 추천하고 싶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이은성 작가의 책인데 허준의 일대기를 소설로써 만들어낸 책이에요. 가상과 현실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소설로서 허준의 일대기를 다뤘답니다. 이 책은 집념을 알려줍니다. 사전적 의미로 한정되는 집념의 뜻이 아니라, 직업적 소신의 뜻이 더해져 진정한 직업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의뢰이라는 직업으로 보여줍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지만, 고증을 떠나 감동을 준 책, 돈이 전부 아닌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은하 영웅 전설'입니다. 생도분들은 훈련 중에 교관님들께 웅망한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나온가 그 반대가 나온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이끄는 독재체제가 나온가 반대인가에 대한 지금까지 의논되고 있는 부분을 소설로 만들어준 책입니다. 생도들에게 집단구성원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생각들과 정치적 고찰을 소설로 가볍게 풀어낸 책입니다.

세 번째는 '미생'입니다.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만화가가는 웹툰의 고증을 위해 발로 뛰며, 자료를 얻기 위해 실제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 전반을 관찰하고, 이를 웹툰으로 관찰내용 부분을 녹여낸 작품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연들이 많고, 이 책을 통해 생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도들은 입관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업군인은 수많은 직업군 중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관생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양성된 일반적인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며, 우리 집단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의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도들도 미생을 읽음으로 일반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이런 사회에서 생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Q 이러한 책들을 접하게 된 계기와 읽은 후 얻으신 통찰이 궁금합니다.

A 책은 매번 볼 때마다 다른 인상을 남겨줍니다. 예로, 우리나라 케이팝의 시초인 조용필 선생님은 캣츠를 열 번을 봤다고 합니다. 조용필이라는 대가도 한 작품 속에 볼 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은 내용을 보고 다음은 조명을, 울동을, 극 자체를 보면서 하나를 보더라도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책 한 권도 여러 관점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덧붙여 힛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삼국지를 볼 때도 조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가 여러 인물의 관점으로 몰입하여 보면 매번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 하나를 보더라도, 계절 별로 다른 모습입니다. 책의 문구도 산과 같습니다.

### Q 앞서 순위를 매긴 책 중 1순위로 고른 책의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세 가지 중 가장 권하는 책은 미생입니다. 이 책에서는 직업을 신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가 후에는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의 관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직업의 가치를 이해하며 성장을 하는 것이 생도 과정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 Q 독서 하는 것에 대해 생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책을 읽을 때 지식획득을 위한 독서보다, 작가의 입장으로 독서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는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질문을 해보기도 하면서 독서의 시야를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까지 확장한다면 더욱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SNS 콘텐츠 경연대회 1위 인터뷰

## 스마트한 장교의 시작 : 육군3사관학교를 소개합니다 (feat. 차노을 패러디)

★ 참가생도 : 60기 김현수, 박준혁, 서동균, 양지현, 정지우, 조혜진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스마트한 장교의 시작: 육군3사관학교를 소개합니다. 🐯...  
조회수 1.4만회

### 콘텐츠 제작, 힘든 건 없었나요?

참여한 인원들이 모두 다른 학과다 보니 공강 시간 및 개인정비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고, 그 당시 우천 상황으로 외부 촬영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원작의 가사를 학교를 홍보할 수 있게 마음에 와닿는 가사로 개사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면별 가능한 시간에 동기를 끼리 서로 촬영을 해주며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우리 학교의 장점과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을지를 생각하며 개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동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입을 활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MZ세대 방식으로 학교 홍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입을 활짝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모르는 사람들도 학교에 대해 궁금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쇼츠가 올라가고 난 뒤에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 앞으로 또 다른 아이디어로 쇼츠를 제작하고 싶은 계획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저희의 영상을 보고 육군3사관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원율이 높아진다면 추후 또 다른 홍보 관련 쇼츠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의 장점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촬영하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예비생도들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입을 계속 활짝하는 것과 기존의 영상미를 살릴지를 결정하는 것 사이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쇼츠 (Youtube Shorts)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복도에서 SNS 콘텐츠 경연대회 공문을 보았습니다. 평소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작년 임관환송회 때 함께 장기자랑을 했던 동기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은 추억도 만들고 성과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작하였습니다.

### 영상을 제작할 때 어디서 영감을 얻었나요?

원작인 '차노을의 HAPPY'는 학기 초 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버지가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3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입학 후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을 기혼생도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통해 우리 학교와 학과에 더 쉽게 접하고, 생도 생활에 적응을 빠르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60기 강지애 기자생도

## 설문조사

# 국군간호사관학교 수탁교육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국군간호사관학교 1, 2학년 생도들의 수탁교육이 이루어졌다. 내년에도 수탁교육을 위해 방문하게 될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3가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3사관학교 훈련 후기, 국군간호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생도들의 시각 차이, 내년에 있을 수탁교육 간 바라는 점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3사관학교 훈련 후기

- A: 교관·조교님들께서 안전하게, 또 열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B: 한자였지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냈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며, 마음을 다잡고 강인한 사관생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C: 교장 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추가로 식수가 맛있었고 부식과 간식도 제공받았기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D: 전반적으로 훈련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 국간사 생도대 / 3사 생도대 시각 차이 & 느낀점

- A: 3사교 훈련동이 수용인원이 많아 더 많은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B: 국간사가 단란하다는 느낌인 반면, 3사는 웅장한 느낌입니다.
- C: 3사에는 체력단련 시설과 편의 시설 구비가 잘 되어있으며, 전문 교장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 D: 군인의 기본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슷하나, 생도들이 갖추길 원하는 구체적인 역량이 달라 보입니다.
- E: 국간사 건물이 펜션 같은 느낌이라면, 3사 건물은 복합주택 같아 보입니다.
- F: 국간사 건물이 더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3사는 생활관 외부에 공용 화장실 등이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 G: 국간사는 같은 학년끼리만 친밀한 느낌을 받았는데, 3사는 타 학년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 다음 수탁교육 간 건의사항과 바라는 점

- A: 개인회기가 필요 없는 날에는 휴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B: 일정이 너무 빡빡한 느낌입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 C: 주말 한정 PX의 자율적인 사용이 허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D: 이론 시간 대비 실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습 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E: 체력단련 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체력단련도 추가로 편성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F: 조편성을 할 때 학번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편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기 배광진, 정동현, 61기 노채영, 이재은 기자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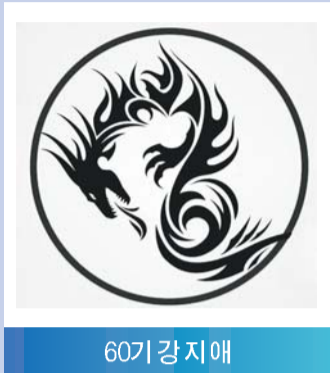


# 61기 기수 로고 공모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61기 '혼연' 기수는 각기 다른 상징과 의미를 담은 로고를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다. 각 기수를 대표하는 로고는 생도들이 2년 동안 생활하며 직접 쓰이기도 하고, 졸업 후에도 상징적으로 흔적을 남긴다. 공모전간 생도들이 공모를 위해 지원한 로고는 4개이며 60기 3명과 61기 1명이 지원하였다. 공모전은 기수 배치 작업에 사용할 로고를 위해 기획되었고, 제출된 로고들은 모두 61기만을 위한 디자인이자 각각 의미를 담고 있다.



60기 김현준



60기 강지애



60기 김기범



61기 박현준

**첫 번째 로고**는 '혼연'의 의미를 강조하며 제작되었다. 혼연은 '누구보다 강하게 모두가 하나 되어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3사관학교를 대표하는 호랑이와 결합해 표현했다.

나이키 로고와 3사 생도가 호랑이로 표현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로고**는 '혼연'의 뜻과 용을 이용해 디자인되었다. 용은 2024년의 상징이며, 십이지간에도 등장하는 특별한 동물이다.

12마리의 동물 중 유일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상의 동물인 용

은, 61기 생도들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로고**는 3사의 부대 마크에서 영감을 얻어 중앙에 61기 기수를 명확하게 나타내어, 변형 없이 문자 그대로 사용하여 가독성과 인식성을 높였다.

상하에 '혼연'이라는 단어와 함께 서로 어울린다는 의미의 태극을 배치해 균형감을 더했다. 남색 배경에 금색 테두리를 두어 우주 속에서 빛나는 별을 상징하였다.

**마지막 로고**는 서로 어울리는 태극 문양 안에 '혼연'의 한자를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더했다.



위 4가지의 로고 공모전을 대상으로 61기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60기 김현준 생도가 제작한 로고가 선정**되었다. 60기 김현준 생도는 "혼연이라는 이름과 그림을 연결 짓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60·61기 로고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2년 연속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61기 나은 비 기자생도

## 따뜻한 소식을 전해줄 충성대인, 국방라디오에 출연하다!

지난 4월 15일을 기점으로 국방FM이 KFN 라디오로 이름을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관생도들이 라디오에 깜짝 출연하여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는 녹음을 진행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으며, 학교 교수님들도 생도 모집 홍보를 위해 라디오에 출연했다.

이번 호에서는 라디오에 출연하며 학교에 따뜻한 소식을 불게 한 사관생도와 교수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 사관생도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61기 8중대 군수보좌생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관생도 김영빈입니다. 저는 병, 부사관, 장교 과정을 거치며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을 군대에 총 3번 보내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 Q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녹음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부모님께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 이번 계기로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사연을 녹음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A 메모장에 미리 적은 글귀를 읽어가며 덩달아 울기 시작했지만, 읽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와 함께 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 왠지 모를 의무감이 생기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Q 생도 생활 중 가족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A 가장 든든하고 편한 버팀목이며 저만의 인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연인 등 많은 주변인이 힘을 주지만 가족만큼 근본적인 힘을 주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Q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물론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면 꾸준히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항상 무뎠던 아들이라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때도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한층 성장한 아들이라서 당당하게 마음을 전달하며 부모님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교수

#### Q 먼저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지민 소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소속으로 정치학 일반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 중인 과목은 통일문제연구·북한학이며, 전 생도가 수강해야 하는 북한학 과목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 Q 교수님 역시 3사관학교 생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지원하셨나요?

A 그렇습니다. 저는 육군3사관학교 46기로 2011년도에 임관을 하였습니다. 사실, 친형이 육군사관학교 63기로 현재 현역 중령입니다. 장교의 꿈을 꾸게 된 것은 형의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선택은 제가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학생회장장이었습니다. 전교 회장을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꿈을 막연히 '리더'와 관련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진학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형이 3사관학교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일반 육해공 사관생도들과는 다르게 2년의 대학 생활도 해볼 수 있고, 4년제 학위를 주는 사관학교 생활도 해볼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 Q 교수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생도 시절 교수님들이 워낙 훌륭하셔서 제가 교수가 될 거라는 꿈은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로 선발되기 전, 최전방 공동경비구역 JSA경비대대에서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이후 고군번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모교 교수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고, 선발되어 현재 교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Q 육군3사관학교의 교수 양성과 채용 시스템은 일반 대학과는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가능할까요?

A 육군3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육해공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사관학교 교수는 선발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교수를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을 받아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국가관·안보관 등에 문제가 없는 인원 중에 선발되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찍부터 교수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위에서 대위(진) 사이의 인원 중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그 인원을 국외로 국내외에서 석·박사 공부를 시킨 후에 정년까지 교수로 복무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일반 군인들은 계급정년을 적용받지만, 사관학교 교수는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고 계급과 상관없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Q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든 교수로서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A 교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준비'는 항상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JSA 경비대 임무수행 후 미국 고군번을 가기 위한 작은 소망이 있었고, 그를 위해 영어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또한, 어디서든 3사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더 헌신하며 노력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릴 수 있는 카드가 있었고, 당시 대대장님께서도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언젠가 자신에게 올 기회를 대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기 이재원 이승 환 기자생도



칼럼 I



소령 권 지민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을 배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수한 영향력 있는 동문을 많이 배출해왔다.

이것은 육군3사관학교의 일반학 교육 체계나 군사학 교육, 지휘·훈육 교육 체계가 정예 장교 양성에 걸맞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 교수 역시 육군3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서, 3사관학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하루도 헛되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곤 한다.

최근 들어 병사로 복무 시 월급과 복무 기간에 대한 여러 기회비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초급간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짐에 따라, 이곳 3사관학교를 선택했을 때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다시 학교를 나가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과 면담을 할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조직생활이 어렵다” 등이다. 같이 육

여러 다방면의 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회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복무를 하지 않고 단기복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이 되는 나이가 30대 초가 대다수인 통계를 보았을 때도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하물며 4년제 대학 졸업장에 육군 대위 전역이라는 명예까지 함께 한다.

아쉽다. 사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스펙 경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더라도 토익 900점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며, 각종 자격증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정도의 영어성적과 자격증, 본인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임관 이후의 삶은 순탄하다 못해 열려있다. 우리 후배 생도들이 조금은 사회의 분위기를 깨닫고 3사관학교가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 기회 창출의 장이 3사관학교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 60기·61기 청년사관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믿어 의심치 말라

**사관(士官)**이라 함은 장교가 되기 위하여 각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생도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입교 전, 군에 대한 비전과 장교가 되겠다는 희망으로 육군3사관학교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무사히 생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60기·61기 생도들은 엄연한 사관들이며,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관생도들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북한의 도발이 극심하던 1960년대, 육군의 중견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68년 10월 15일 창설된 후 현재까지 육군 장교의 50% 이상을 배출하였고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장교 양성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탄생했던 학교이기에, 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장군

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스스로의 담금질을 쉬지 않고 있다.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그때 당시 3사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어 번씩 한다. 또한, 생도 시절 동기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3사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대화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학교에

군3사관학교를 졸업하여 14년째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선배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는 비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 비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 3사관학교를 떠나는 순간 비전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3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 고급 장교까지 진출할 수 있고 교수·군·정책 특기 등

칼럼 II



대위 송 진 호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영역(Multi-Domain)에서 영역 간의 교차(cross)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핵심인 작전개념이다. 미 육군은 이 작전개념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안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수적으로 열세이며, 두 국가의 군사기술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앞으로는 확보하지 못하리라 판단했다. 이에

리는 조정된 부대 태세(calibrated force posture), 다영역부대(multi-domain formations)의 활용, 융합(convergence)이다. 첫째, 조정된 부대 태세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와 자신들을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영역부대의 활용은 다영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지속성을 가진 부대의 활용을 의미한다. 셋째, 융합은 다영역에 전개한 역량들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armed conflict)이 혼재된 경쟁의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 속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다영역작전은 전·평시 구분없는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경쟁(compete), 돌파(penetrate), 해체(dis-integrate), 전과확대(exploit), 재경쟁(re-compete)의 순서로 구성된 작전수행단계를 제시한다.

작전개념의 수용에 있어서 수용해야 할 작전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육군은 과거 미 육군의 작전개념인 공지전투(Air-Land Battle)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게 수용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지전투라는 작전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게 작전개념을 능동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영역작전의 경우에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영역작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수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육군 장교로서 다영역작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게 될 생도들의 다영역작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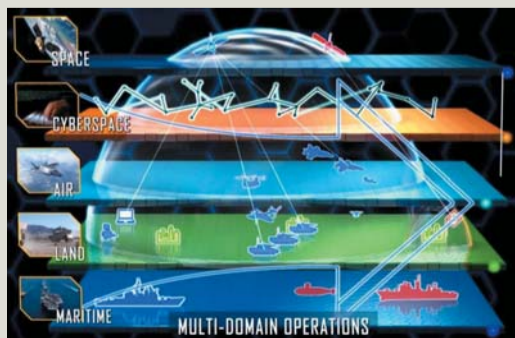
**다영역작전**은 미 육군에 의해 고안된 작전개념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자국의 작전환경과 조건에 맞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다영역작전을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수용 중이다. 일례로 우리 육군은 다영역작전을 기반으로 한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을 채택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 지상군 부대 개념인 ‘아미타이거(Amy TIGER)’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영역작전에 대한 이해가 향후 육군 장교가 될 생도들에게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이를 생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영역작전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정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다

##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의 의의

따라 미 육군은 다영역작전에 기반하여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통합 운용해서 결정적인 시간, 장소,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다영역작전의 핵심원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multiple option)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영역작전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무력분쟁 시에는 유리한 조건 아래 신속하게 원래 상태로 회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중시한다. 다영역작전 이전에는 전시와 평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으며, 전시에서의 군사작전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반면에 다영역작전은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무력분쟁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문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3사 13기)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는 미국의 33번째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자신의 결정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하는 말로 유명하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이 문구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는 나무로 명패를 만들어 선물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 명패가 놓여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불법 남침하자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미군을 주축으로 유엔군의 참전을 결

정했다. 그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여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the buck stops here” 자신의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라고 나서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이후 이 문구는 미국 대통령들의 결정력과 리더십에 대한 상징적인 말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사실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받을 당시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생도들에게 이 표현을 소개하는 것은 장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장교는 군인이자 병사들을 지휘하는 리더십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때때로 나의 결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할 경

를 했다. 이후 학교제도개편으로 부득이 학교를 떠나 전방 중대장으로 지휘관 생활을 했다. 이후 공부에 대한 집념으로 석박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2년 소령부터 2009년 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국방부 정책실에서 20년 가까이 대북군사정책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북한 군인들과 군사회담을 50여 차례 수행하면서 결정의 순간들에 직면할 경우가 참 많았다. 2004년 6월 개성에서 무박 3일간 회담을 하면서, 그리고 2007년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하면서 적지에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만일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내가 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을 때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 결과는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장교의 길은 명예의 길이지만 책임도 뒤따른다.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주어진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책임도 있다. 그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The buck stops here’라는 좌우명은 탁월한 결정을 내리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후배 생도 여러분!! 모두 멋지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라 비웃음을 샀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 좌우명 덕분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들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호감을 사게 된 것이다.

‘The buck stops here’는 포커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딜러 역할을 할 때, 자신의 앞에 손잡이가 수사슴 뿔로 된 칼(buckhorn knife)을 놓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딜러로서 책임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게임 참가자 간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후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의

우 그 공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혹시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결정으로 생기는 공은 부하나 상관에게, 실패로 돌아오는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돌리는 자세야말로 훌륭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필자 본인은 1976년 임관 이후, 3사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학부 위탁교육을 받고 모교로 돌아와 18기와 19기 생도들에게 국사 및 군인정신 강의

사건저명인사 칼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이들이 육군의 위기를 걱정한다. 세계인구는 이제 81억 명을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60만 명을 자랑하던 국군은 2022년 50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대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병력 부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급간부의 부족과 중견간부의 전역 등으로 우리 군의 대들보가 흔들린다는 우려이다. 특히 아무리 첨단미래전장이더라도 우수한 현장 지휘자의 확보는 승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아무리 첨단화되고 정밀해지는 전장이라고 해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과학

적 법칙이 아니다.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랗고도 통제 불가능한 노력인 전쟁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하고 있는 ‘마찰’ 즉 전쟁의 불확실성이나 우연성은 불가피한 존재이다. 이런 마찰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마찰’을 이용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를 확보하는 기회로서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하고 있는 요지이다.

따라서 군인, 특히 지휘자는 이러한 ‘마찰’의 상황 속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를 ‘군사적 천재’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천재란 하늘이 내려준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고도로 발달된 정신적 적성”을 뜻한다. 천재란 타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길러진다. 사관학교는 그러한 후천적 천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미군에는 3M 리더십이란 개념이 있다. 3M은 Mission, Men, Me의 3가지를

의미한다. 군인의 사명은 임무(Mission) 완수이며, 이 임무 완수는 부하들(Men)이 수행하는 것이기에 부하들의 복지를 챙겨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나(Me)의 개인적 영달은 뒤로 하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건 임무 달성이 군의 핵심가치이다. 임무가 정통적인 명령체통을 따라 하달되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이 군의 존재가치이다. 따라서 지휘자로서 최고 가치는 임무를 우

선하여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하이다. 임무는 결코 지휘자 홀로 완수할 수 없고, 부하들이 이뤄내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휘자는 부하들이 임무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복지를 챙기며,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 이끌어야 한다. 하급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올바른 전술과 절차로 부하를 이끌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은 나 자신이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임무와 부하를 돌본 후에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다. 절

대로 자신의 개인적 행복 또는 진급을, 임무나 부하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야말로 불패의 군을 건설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3M 리더십을 실현하려면 현실 공유가 필수이다. 업무의 조직화 방법을 부대원들이 잘 알고 공유해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부하들을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를 잘 알고 수행하는지, 유사한 임무 간에 서로 교대와 보완이 가능한지 챙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의 부대가 된다. 현실 공유가 이뤄지는 부대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묻고 탁월한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는 육군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다. 압축적이고도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한 3사 출신의 장교들은 육군의 모든 영역에서 군을 이끄는 든든한 대들보로 활동한다. 이러한 정예장교들이 3M 리더십과 현실 공유의 문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진정한 지휘자·지휘관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육군은 더욱 강하고 든든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 3M 리더십과 현실공유



2024 트렌드 노트



신 에 은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이제는 너무 당연한 식후 디저트 지난 10년 간 어떤 디저트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왔는지 데이터로 살펴보자.

작년 2023년 대유행이었던 탕후루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 길거리에 꼭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는 젊은이들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탕후루 가게들. 급기야 국감 이슈로까지 부상했다. 지금의 탕후루는 어떠한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한층 인기가 꺾인 모습을 보인다. 소셜 데이터상으로도 '탕후루'에 대한 언급은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탕후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디저트들이 존재했다 사라지기도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기도 한다. 인기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디저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셜 데이터상으로도 '디저트'에 대한 언급량은 2020년 1분기에 비해 2023년 3분기에 약 2.4배 늘어났다. 이렇게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디저트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 왔을까. 디저트의 의미 변화와 그 속에서의 흥망성쇠를 소셜 빅데이터로 함께 살펴보자.

디저트의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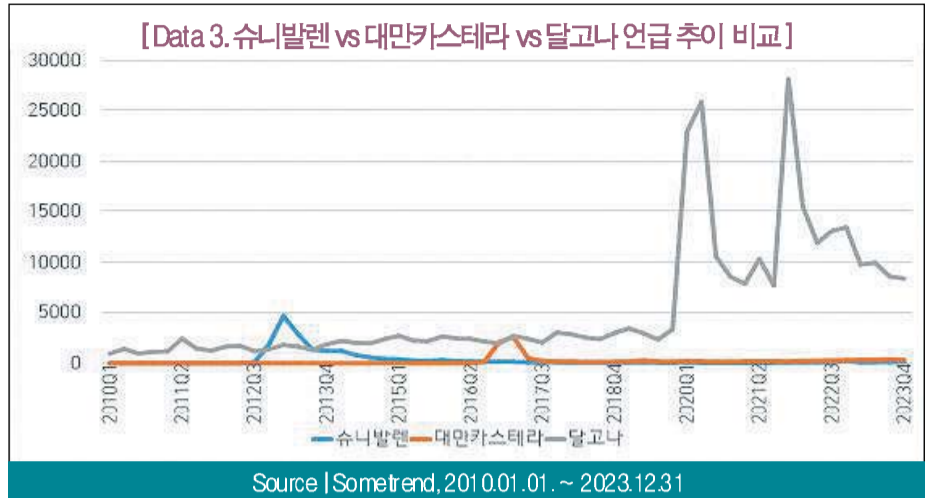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디저트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과 2022년 3년간의 변화만 보더라도 디저트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연관어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수제', '재료'와 같은 성분과 재료

데이터로 살펴본 한국 디저트 10년 史

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저트의 의미 변화 속에 어떤 종류의 디저트들이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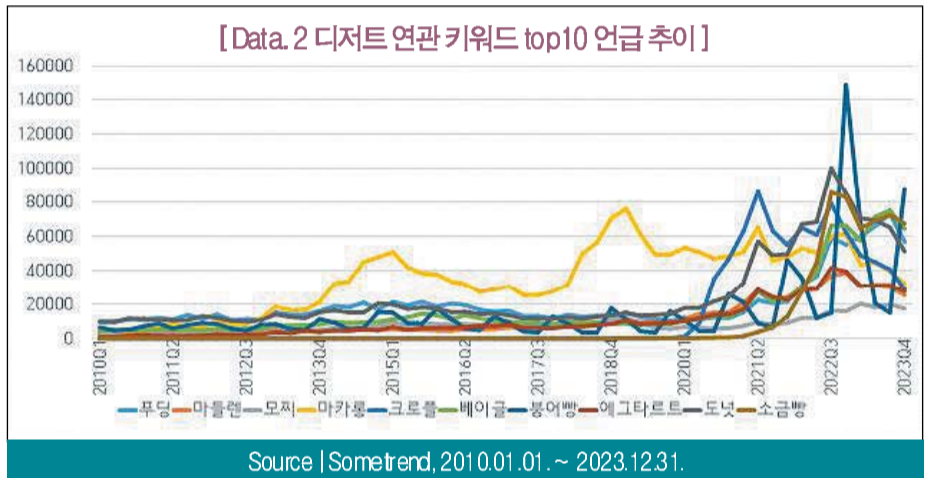
한국 디저트계의 대모, 마카롱

최근 10여 년간 '디저트'의 연관어로 나오는 디저트들의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4 Q1부터 2021 Q2까지 약 7년간 압도적인 1위로 언급되던 디저트가 있다 바로 '마카롱'이다. 지금은 야마카롱이 디저트로서 그렇게 각광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는 한국 디저트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였음에 이터가 증명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행이 지났다고 마카롱이 사람들에게 아예 잊혀진 디저트는 아니다. 오히려 쉽게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일상적 아이템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디저트마다 특징과 목표가 다르겠지만,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마카롱과 같이 꾸준히 찾아지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달고나 게임이 유행하게 된다. 하지만 '슈니발렌', '대만카스테라', '달고나' 모두 당시에만 크게 인기를 얻고, 지금은 잊혀지고 있다. 이런 잊혀진 디저트들에는 공

지, '도넛'은 2020 Q1부터 2022 Q3까지 1년 이상 걸린 모습을 보인다. 천천히 차근차근 인기를 쌓아간 만큼, 잔존도 오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잔존한 유행 디저트와 잔존하지 못한 유행 디저트의 큰 차이점이다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장수하는 디저트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디저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곁에서 사라진 디저트들의 특징

먼저, 장수와 반대로 인기를 얻었지만 사라진 디저트들을 시간순으로 살펴보자. '슈니발렌'을 기억하고 있는가? 2013년 1분기에 인기를 얻었던 '슈니발렌'은 당시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슈니발렌을 부수 먹는 망치와 함께 팔았다. 한때 '백화점 가면 사 오는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인기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 이후 2016년 하반기 인기를 얻었던 '대만카

스테라'는 지금의 '탕후루'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로서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당시 인기였던 대만카스테라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고, 이에 대해 '먹거리파일' 방송에서 부정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20년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 것을 SNS에 찍어 올리며, '달고나'가 유행했다. 그리고 '달고나'는 한번 더 유행을 맞게 되는데, 2021년 4분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금 인기 있는 디저트들의 특징

그렇다면 잊혀진 디저트 말고, 지금 인기인 디저트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언급량이 크게 증가한 디저트로는 '베이글'과 '도넛'이 있다. '런던유지베이글', '노티드' 등이 인기를 얻어 웨이팅까지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외에도 '베이글'과 '도넛' 그 자체로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브랜드 및 카페들에서 다양한 맛과 방식으로 소비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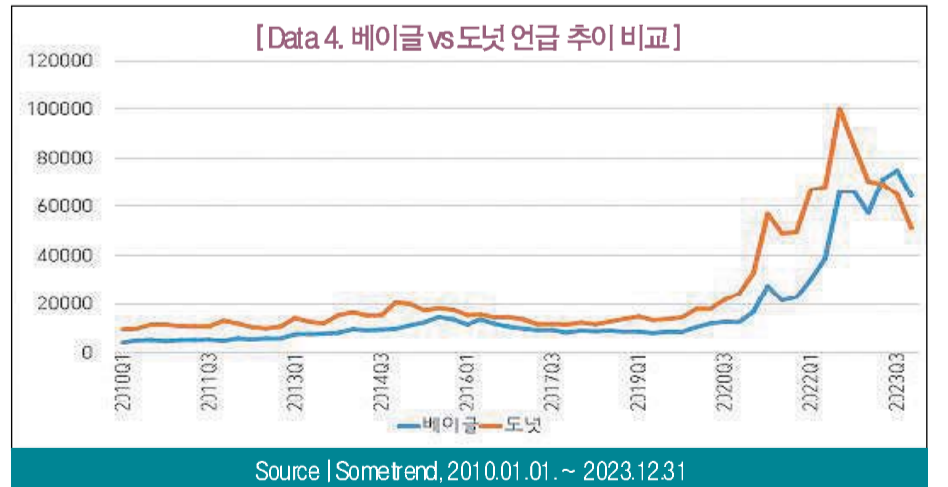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디저트 트렌드

디저트 트렌드에서 소셜 빅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급변하는 디저트 유행 속에서 살아남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데이터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디저트 트렌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점까지의 언급 상승 기간을 통해, 소위 일사적 유행이라 말하는 'Fad'와 장기적 경향인 'Trend'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Trend'로 자리 잡은 디저트들의 특징은 대단히 새로 생겨난 디저트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디저트가 형태의 변화로 새롭게 다가왔다는 점이다. '도넛'의 경우 이전에도 우리는 기존에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과 같은 도넛을 이미 소비해왔지만, 노티드같이 중간에 크림이 듬뿍 들어간 형태의 도넛이 등장하면서, 이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디저트로 받아들였다. '베이글'의 경우도 이전에는 식사 대용으로 식빵처럼 빵집이나 마트에서 주로 찾던 베이글에 크림을 잔뜩 올리거나, 반죽에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해 새로운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베이글을 마트에서 파는 봉지에 여러 개가 담긴 식사대용 빵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핫플 카페에서 미니 케이크와 같이 예쁜 박스에 하나씩 따로 담아주는 디저트의 형태로 인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맛



의 영역에서 디저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로 이야기되거나, '친구랑'과 같이 누구와 함께 먹느냐로 디저트가 이야기되었다면, 최근에는 '포토존'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과 '최애', '시그니처'와 같은 어떠한 맛에 대한 취향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디저트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디저트를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먹는 '식(食)'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맛을 먹는지가 중요한 일종의 '탐미(耽美)'의 영역으

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저트의 의미 변화 속에 어떤 종류의 디저트들이 있었을까?



있다. 하지만 이쯤에도 '도넛'의 경우 언급량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량 상으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인기 디저트인 것은 여전히이다. 앞서 살펴본 '슈니발렌', '대만카스테라', '달고나'와 '베이글', '도넛'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또한 '상승의 기간'에 그 비밀이 있다. 모두 언급량 상승의 고점을 찍기까지 각각 '베이글'은 2020 Q1부터 2022 Q4까

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 또한 '도넛', '베이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올 것이다. 앞서 살펴본 특징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유행 속에서 어떤 것이 지속되고 어떤 것이 지속되지 못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Fad이던 Trend이건 내입에 맛있으면 다 좋은 디저트라는 게!



## 동문(同門)의 소리 I

## 평범함을 뛰어넘는 도전



대위 윤경섭(3사 51기)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석사위탁교육생

필자는 평범한 생도 생활을 보냈다. 성적은 중간 수준이었고, 그중 영어성적은 겨우 졸업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렇다고 체력이 월등하게 좋지도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반학 강의와 군사학 수업 속에서 나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생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통해 얻은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싶다.

**첫 번째, 모두가 피하는 일에 도전한다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입관 후 항공장교 선발시험에 두 번이나 지원하여 어렵게 선발되었다. 항공장교 양성반에서 필자의 주 기종은 AH-1S(코브라)였다. 힘들고 어려운 양성과정을 마치고 코브라 조종사로서 아전 항공

대대에 전입을 갔다. 조종사가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우리 코브라 조종사들에게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백령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육군 근무지와는 거리가 먼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서북도서에 증원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최고의 공격헬기인 코브라 일부가 백령도에 배치되었고, 기존 부대에서 코브라 기종 자격을 가진 조종사들을 차출해 전출을 보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백령도가 격오지이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근무를 기피했지만, 필자는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것이 군 생활에서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해 자원했다.

백령도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2020년 6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필자는 야간 작전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백령도 모든 부대가 교육훈련을 중지하고 상황 대기에 들어갔다. 입도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최고조의 긴장감 속에 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실제 작전 비행이 시작되자,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수신기(RWR)에서 경보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RWR은 항공기 주변의 대공포, 지대공 유도탄 등 대공 무기체계의 레이더 신호를 포착해 조종사에게 위협이 되는 레이더의 방향, 거리 등을 알려준다. 당시 전 방향에서 레이더 신호가 포착되어 정말로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었다.

서북도서 최북단 백령도에서 작전 비행을 수행하고 수많은 상황 대기를 하면서, 기존 부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경험이 필자

의 군 생활을 튼튼하게 지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두 번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큰 힘이 된다.**

백령도 근무를 자원하기까지 A 대위의 도움이 컸다. A 대위는 필자와 생도 시절부터 같은 중대에 있었고, 같은 학과를 졸업한 후 함께 입관했다. 항공병과에 지원하여 코브라를 탔으며, 심지어 출생지와 출생 병원도 같았다. 비록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같은 코브라 조종사로서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군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백령도 근무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백령도에서 A 대위와 함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백령도에서의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경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격오지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나는 위탁교육 선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나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부대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나는 백령도에서 몸소 체험했다.

여러분의 사관학교 생활이 평범하고 성적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이다. 기피되는 근무지나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길 바란다. 또한, 여러분의 동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 모두에게는 각자의 '빛나는 별'이 있다



대위 주민정(3사 53기)

연세대학교 보건대 석사위탁교육생

"영천은 수많은 별이 가득한 도시이다. 이곳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반드시 발견하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나 일어난다"라는 말과 같다. 생도 시절, 우리는 꿈의 비행기를 접어 책상에 올려두라는 생도대의 특명을 받았다. 훈육장교님들은 그 종이에 앞으로의 군 생활을 상상하며 기간별 목표와 최종 목표를 적어보라고 하셨다. 책상 앞

에 앉아 텅 빈 A4용지를 바라보니, 그하얀 공백이 무척 커 보였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다 적고 검사를 받는 동기들이 있었다. 동기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들의 목표와 비슷하게 적고 검사를 받아 그날을 넘겼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모두에게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백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세와 준비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하얀 여백 하나에도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생도대에서 이 과정을 시킨 의도와 기대를 생각하면서 나는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때 문득 '내가 지금 적을 목표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미래에 대한 괜한 기대와 허황된 목표를 세워, 어느 날 그것과 엇갈린 현실에 실망하게 될까 두려웠다. 나는 그렇게 내 비행기를 또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처음 시작점 A에서 내가 목표한 D까지 가는 길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B와 C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목표가 변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도달할 수도 있다.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때때로 길을 잃고, 돌아도 가고,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중이다." 교수님의 이 말씀에서 백지를 마주 볼 용기를 얻었다. 종이에 적은 나의 꿈은 실제로는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출발점과 목표지점 사이에 예기치 못한 과정과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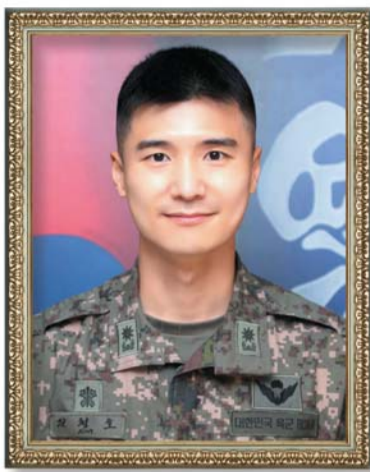
회가 되고, 배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표가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벌써 실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나는 생도대로 복귀하여 내 비행기를 완성했다.

지금 그 목표들을 보면 그때의 패기와 당당함이 날 웃음 짓게 한다. 놀라게도 이룬 것도 있고,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물론, 실패한 목표들도 많다. 하지만 괜찮다. 생도 시절에도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고 나도 나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사실 우리 모두 실패가 더 많지 않았는가? 도전과 실패가 무한 반복되다가 한 번의 성공을 맞이할 때면 감동하고 감사하며 감탄한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또다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 오늘 저녁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군 생활을 상상하며 기간별 목표를 적어보길 바란다. 지금 당장 너무 먼 목표를 찾는 것이 힘들다면, 이번 달의 목표라도 간단히 적어보길 바란다.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다가올 미래와 기회들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 작은 별 하나가 지지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생도의 인생은 생도 자신의 것이다. 생도대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이나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지금을 즐기며, 동기들과 서로에게 빛을 비추주며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여정에 출발점이 되어줄 육군3사관학교와 그곳을 거쳐 간 선배들이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소령 김철호  
46기/보병  
3사단 22보병여단

- 제46기 생도 과정 1등 졸업(대통령상)
- 초군반(OBC) 1등(교육사령관상)
- 고군반(OAC) 3등(보병학교장상)
- 제2회 육군인권교관 경연대회 우수(참모총장상)
- 2019년 재구상 수상(참모총장표창)
- 2022년 소령지휘참모과정 정규반 성적우수(육군대학총장상)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동기들이 힘든 때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관 후 10년이 조금 넘은 지금은 동기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소령 진급 후 지휘참모과정에서 친했던 동기들과 같이 살았고, 또 잘 몰랐던 동기들과도 같은 반이 되어 평생의 인연을 맺은 게 임관 후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소중한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훌륭한 장교가 되어 아전으로 오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선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위 강유정  
54기/기갑  
9사단 전차대대

- 3사 최초 여군 기갑병과 진출
- MBC '진짜사나이300' 출연
- 2020년 동춘상 수상, 초군반(OBC) 기갑인상
- 2019년 국방부 화보프로젝트 육군 모델
- 2021-1 국방어학원 고급영어반 수료
- 2024-1 美 기동고군반 수료(MCCC)

목표 없는 삶은 등대 없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느새 그 꿈과 목표를 이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도 생활은 담금질의 과정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지역체를 고루 갖춰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와 용기로 책임을 다하는 충성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캐나다 밴쿠버 동문회

### 하계군사훈련을 앞둔 생도들을 위한 격려의 말

저는 후배들을 보면 늘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힘든 생도과정을 훌륭히 이수한 후배들을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체력단련 열심히 하시고, 영어 및 제2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체력, 영어, 제2외국어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군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으며, 삶 또한 넉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8기 김상호**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통제된 생활의 연속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통제된 생활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언제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진지, 고지에 올라가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볼 때의 감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밴쿠버로 온 이후 로키산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산봉우리를 다녔으며, 겨울 시즌에는 여러 나라의 산을 다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도 생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9기 고정원**

입관을 앞둔 1992년 12월 어느 날 어떤 교관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관과 동시에 전역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각자의 시기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통신병과의 특기를 살려 전기공사 관련된 공부를 선택했고 5년 차 전역 후 전기공사업체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밴쿠버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 교관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역하는 시기는 다르나,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니 전역 후 돈 벌며 즐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29기 이현이**

하계군사훈련을 앞둔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교는 여러분들을 다부지고 당찬 소대장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의 주체는 학교이지만, 그것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잘 가꾸고 성장시킨다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습니다. 저는 과거에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고, 그덕에 합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미군과 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많은 다국적 군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인연들이 이어져 이곳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만남을 결코 가볍게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도 시절 동안 받는 훈련,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닌 만큼 하루하루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계군사훈련을 앞둔 60기, 61기 화이팅!!!

10년 복무 후 전역해서, 한국방송공사(KBS) 총무팀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밴쿠버에 거주 중입니다. 군 생활,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이민 생활이란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유격, 공수훈련 등 2년여 간의 생도 생활 중 배웠던 것들을 되새기며 참았습니다. 인내심, 강한 체력, 절제력 등을 육군3사관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후배님들 모두 무사히 입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생도 생활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31기 김홍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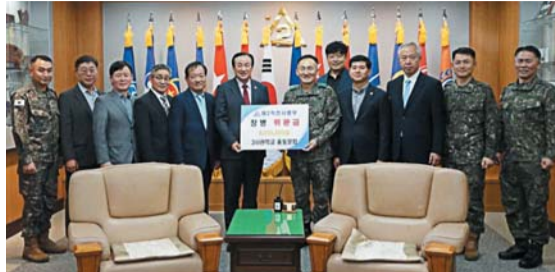
6년 복무 후 전역하여 NS홈쇼핑 등에서 근무하다 현

재는 밴쿠버에 거주 중입니다. 캐나다의 역대 국방부장관은 44명인데, 대부분 군인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장교 출신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나마도 장성급 출신 국방부 장관은 수 명에 불과합니다. 제복 입은 군, 경을 존경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기도 합니다. 영어(Free Talking)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장교로 복무한 분은 캐나다에서 충분히 국방부 장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영어공부, 체력단련, 성실한 장교임무수행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추후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캐나다 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배님들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33기 이진희**

저는 2013년도에 6년 차 전역 후 바로 캐나다로 이민 왔으며, 현지에서 대학 졸업 후 용접 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캐나다 연방 경찰인,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RCMP는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경찰로 선발되기 위해서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쳤는데, 육군3사관학교에서 배운 강한 정서력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졸업 후 아전에서 리더로서 근무했던 많은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경찰을 보면 손도 흔들어 주고,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해 주는데, 어느 직업에서든 느낄 수 없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1년간 살면서 느낀 점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역 후 해외 이민을 꿈꾸시는 선배 동문님들이 있으시다면, 캐나다 이민 후 경찰에도 전해 보는 것도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42기 서규**



### 총동문회 부대 격려 방문 및 위문금 전달



2작전사령부(26기 고창준 장군) 방문 (4. 19.)



21사단(30기 남진오 장군) 방문 (5. 3.)

### 동문 취임식 행사 축하 방문



1기갑여단장(29기 임국기 장군) 취임식 (4. 30.)



73사단(29기 김경일 장군) 방문 (5. 7.)



5공병여단(31기 이혁정 장군) 방문 (5. 21.)



35사단장(30기 김광석 장군) 취임식 (5. 1.)



### 이용환 3사관학교장(26기) 총동문회 방문

지난 5월 28일, 이용환 3사관학교장은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박주왕 총동문회장과 그동안 추진되었던 생도 입관 시 장기복무 입법 추진, 생도 모집률 향상을 위한 홍보 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이용환 학교장의 열정적인 대외 역량 강화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총동문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용환 학교장은 이임하는 박주왕 총동문회장의 재임 기간 중 보여준 모교 및 동문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패와 함께 전달했다.

**3사 총동문회**



### 故 차성도 중위 54주기 추모식 거행

지난 5월 21일, 총동문회는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故 차성도 중위의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동생인 유가족을 비롯하여 총동문회장, 1기 동기회 20여 명, 울산지역 추모사업회장, 15사단장 및 참모, 병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특히, 올해는 故 차성도 중위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차성도상'을 제정하여 사단 초급장교 중 4명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故 차성도 중위(1기)는 1970년 1월 17일 육군 소위로 입관해 27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그해 5월 13일 소대아간병어 사격훈련 중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은 후 실수로 놓쳐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부히들을 구한 뒤 순직했다. 3사 총동문회**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지난 6월 6일, 총동문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동기회별로 순직한 동기생 묘역을 돌아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취임 후 첫 번째 행사를 현충원에서 가지게 된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정부 행사에 참석한 후 동기회를 순회하며 17대 총동문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요청했다.

**3사 총동문회**

### 제16·17대 총동문회장이·취임식 행사



지난 5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제4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제16·17대 총동문회장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내외 귀빈과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제17대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20기로 입관하여 공병장교로 근무하다 대위로 전역한 뒤 기술사, 공학박사를 취득한 감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현재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다.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 위상을 한 차원 높이고 화합단결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며, "17대 총동문회가 더욱 발전된 동문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문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6대 박주왕(19기) 총동문회장은 지난 2년간 동문 화합단결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문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이상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어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3사 총동문회**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4. 4. 18. ~ 6. 26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기부액), 단위: 만원

총 자산 95억 5천만원(2024.6.26. 기준)

###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4. 4. 18~6. 26.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87), 두석주(육사#51) 2246, 류지만(육사#52) 219, 이우진(육사#54) 2(98), 변용성(육사#53) 2(137), 이주실(육사#58) 2(114), 김대영(육사#59) 2204, 문은석(육사#59) 2(110), 홍희종(육사#61) 2(133), 홍인재(육사#63) 2(66), 김홍재(육사#71) 6(24), 문준호(육사#67) 1(74), 한덕수(학군#26) 2(143), 남기웅(학군#29) 2(48), 구희근(학군#32) 4(174), 송경재(학군#37) 2(160), 정우람(학군#46) 2(54), 홍현신(학군#48) 2(56), 유성국(학군#54) 2(11), 권영훈(학군#56) 2(24), 최재호(학사#29) 2(160), 임도현(학사#54) 2(139), 구주현(학사#53) 2(62), 임채훈(학사#55) 1(118), 성현애(학사#56) 2(82), 심정현(학사#58) 2(70), 최윤정(간사#38) 2(75), 문길섭(준위) 2(18), 송승현(원사) 2(17), 강필승(군무원) 2(24), 이수진(군무원) 2(46), 정시연(군무원) 2(57), 최지욱(군무원) 2(11)

### ■ 졸업생 가족('24. 4. 18~6. 26.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60), 김종국 #41 김성준 부) 20(440), 김정숙(#45 배형규 모) 12(20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80), 백인숙(#47 모) 2(71), 서종태(#48 서현우 부) 100(1200), 성동모(#50 성영환 부) 2(27),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290), 김현미(#52 오치원 모) 2(82), 이영미(#52 황성규 모) 9(400), 임성영(#52 임강민 부) 2(16), 정정화(#52 조강현 모) 2(375), 박일식(#53 정필승 모) 2(178), 김명철(#55 유동원 모) 30(160), 서완수(#55 서지찬 부) 6(150), 송학빈(#56 송용준 부) 2(98), 정희숙(#56 배용휘 모) 20(151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770), 김근택(#57 김광진 부) 4(94), 김순달(#57 김준모 모) 4(88), 박경석(#57 박찬환 부) 6(102), 오유미(#57 김주현 모) 4(98), 이동희(#57 박찬환 모) 6(137), 장윤석(#57 장홍준 부) 10(10),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45), 최결순(#58 최승환 부) 3(51), 현석호(#58 현민석 부) 6(27), 정신(#59 김종현 모) 2(28), 조철만(#59 조현웅 부) 9(50), 현석호(#59 현정민 부) 6(27)

### ■ 재학생 부모('24. 4. 18~6. 26. 기부현황)

#### ▶ 4학년부모

김산태 2(61), 손학원 40(303), 임성영 2(16), 장은심 20(160), 정미경 10(85), 정지한 10(70), 홍영옥 2(16), 홍혜숙 2(16)

#### ▶ 3학년부모

권요대 100(100), 김혁 302(306), 박영순 10(15), 신자영 10(15), 최영순 20(40), 황광미 4(10)

### ■ 졸업생('24. 4. 18~6. 26.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10(240), 남훈조 10(1539), 이7민 1(588), 임관택 2(114), 최익환 2(116)
- ▶ 2기 윤경혁 10(630)
- ▶ 3기 장영집 10(310)
- ▶ 5기 김일순 19(485)
- ▶ 9기 권영호 10(585), 김현기 6(1,281), 윤지환 6(240), 최병학 15(1,405)
- ▶ 13기 문성목 30(580)
- ▶ 14기 김길영 2(132), 김종환 2(89), 안호 38(2,328), 이순진 10(1,040), 이용진 10(520), 이종학 4(167)
- ▶ 15기 김성인 3(560)
- ▶ 16기 이영호 3(161), 이종우 3(194), 황병태 2(342)
- ▶ 18기 구연덕 3(164), 금융백 6(672), 이기환 2(59), 진기상 4(1,144)
- ▶ 19기 김익수 6(251), 이종형 6(356), 이창호 6(678), 임영갑 10(220), 홍성식 2(229), 황영태 9(212)
- ▶ 20기 박권순 4(215), 서정열 2(526)
- ▶ 21기 신철수 6(1,334), 이정문 6(278)
- ▶ 22기 이진성 4(281), 정경호 2(78), 천병규 4(516), 홍성덕 10(281)
- ▶ 23기 김태일 2(264), 신영찬 2(105), 오승욱 6(332), 정철재 6(249), 최승환 2(41), 허강수 4(347)
- ▶ 24기 곽종만 4(120), 권오봉 3(248), 김도협 2(266), 김성래 6(100), 모경원 2(261), 박세철 2(104), 박찬웅 3(65), 방성대 6(238), 이문휘 2(126), 정정현 2(225), 홍성휘 6(112)
- ▶ 25기 김달호 2(3), 문봉성 4(253), 장무수 2(83), 전희준 2(339), 홍은표 2(233)
- ▶ 26기 고창준 16(502), 신태영 2(126), 양성안 3(30), 유근환 2(69), 이덕우 2(160), 이용환 10(45), 이원주 3(214), 이태인 4(130), 임우영 2(278)
- ▶ 27기 김관수 6(181), 김덕중 2(102), 김성오 4(98), 김용범 6(78), 김지덕 2(56), 김호복 7(392), 나현민 6(228), 석수열 2(79), 원희문 3(334), 이희순 2(273), 정월균 3(78)
- ▶ 28기 권승영 1(41), 권양철 4(147), 박용섭 4(241), 유정일 2(69), 윤석찬 3(175)

- ▶ 29기 김강식 2(279), 김태영 4(98), 박성훈 2(187), 박태용 2(166), 이상일 2(222), 정해군 2(8), 현대식 2(184), 황재식 2(15)
- ▶ 30기 김광석 4(70), 김홍민 4(39), 남진오 2(89), 이병길 2(53), 이용학 3(10), 이진 2(183), 임상달 2(153), 홍성범 2(71), 함민호 2(134)
- ▶ 31기 권동호 4(128), 김민식 4(158), 김영태 2(215), 김태희 2(43), 김희엽 2(260), 염향수 2(170), 이재춘 2(244), 이훈복 2(82), 최대집 2(80), 전경민 2(67)
- ▶ 32기 권관덕 4(380), 김화용 2(147), 사인우 2(169), 송진수 6(126), 이태현 2(58), 정영규 4(17), 주정용 2(17)
- ▶ 33기 권해욱 4(86), 권오진 2(2), 김남식 2(197), 김성근 4(212), 김현규 4(460), 남석진 2(171), 신성균 2(14), 안경일 2(266), 안준영 6(221), 이정표 6(161), 정용호 2(12), 조용화 2(51), 조재봉 2(144), 홍종원 1(61)
- ▶ 34기 김민오 4(52), 김운성 2(78), 김홍식 6(537), 류영택 4(121), 우진호 2(15), 이무이 2(438), 이재원 2(7), 임창훈 2(114), 정연민 2(14), 정웅민 4(248), 정창근 2(140), 정춘황 2(90), 조수창 2(215), 홍영기 2(57)
- ▶ 35기 김경철 2(43), 김수열 2(103), 박병준 6(410), 박상우 2(101), 박상찬 2(61), 박시근 2(217), 송명성 4(128), 유희승 4(22), 이문희 2(183), 은명훈 4(32), 임창규 2(141), 장춘삼 2(178), 전성광 2(72), 정병삼 2(185), 정영석 6(149), 정호준 4(162), 하중수 2(59), 한중훈 4(435)
- ▶ 36기 김도희 4(122), 김동혁 2(123), 김명규 1(67), 김현 2(162), 박광석 2(12), 박정훈 2(5), 양현승 2(248), 이광희 2(182), 임중수 2(104), 장세호 2(235), 정우철 2(170), 조동권 3(251), 진연수 2(195)
- ▶ 37기 강성봉 2(201), 김양훈 6(339), 김충기 6(215), 김홍년 2(266), 노진철 2(180), 문장권 2(54), 송석봉 4(219), 송용섭 2(353), 신용철 2(33), 임태환 2(24), 옥원호 2(166), 이관모 2(172), 이원형 4(343), 임원철 2(187), 정우진 2(104), 정태욱 4(180), 최정호 2(72), 함성규 2(137)
- ▶ 38기 강민 2(43), 김대현 2(48), 모을하 2(265), 문정민 2(150), 문현성 2(263), 서성걸 2(107), 이경식 2(211), 위재익 4(141), 정한옥 2(242), 함기훈 2(118)

- ▶ 39기 권웅 6(84), 김의진 2(159), 김인경 2(117), 김지훈 6(153), 박철균 2(153), 송창현 4(179), 심용운 2(122), 양운차 2(100), 이대화 2(245), 이용렬 2(141), 장동준 2(117), 정대겸 2(60), 최현철 2(306)
- ▶ 40기 구자은 4(238), 김백린 6(244), 김영우 6(346), 김우형 4(74), 김중욱 2(73), 김형수 2(209), 남태근 2(68), 박상규 2(86), 박진하 2(125), 송석준 2(170), 유형선 2(116), 이호연 10(858), 이훈석 2(92), 주영우 2(41), 최창국 2(128), 하성남 5(56)
- ▶ 41기 권영철 2(99), 김석진 10(408), 박한지 2(219), 방현욱 2(109), 손종득 2(127), 임성은 4(185), 전종상 10(367), 정기채 2(219), 최민규 4(177), 최지능 2(242), 홍학현 6(82)
- ▶ 42기 강구한 2(50), 강재석 2(137), 강정희 2(186), 공광석 2(92), 김동우 2(160), 김동진 2(129), 김용민 2(96), 박용준 6(130), 박효찬 2(186), 손병현 2(204), 윤광일 2(42), 윤희철 2(180), 이기욱 2(127), 이성호 2(61), 이승은 2(186), 이용학 1(188), 정만기 2(179)
- ▶ 43기 김인중 2(270), 노창래 2(77), 박희영 2(93), 배동직 6(238), 백두산 4(302), 염태섭 2(78), 이남익 2(97), 이도훈 2(161), 이용희 4(289), 이호선 2(116), 최진호 4(151), 허광석 2(125)
- ▶ 44기 김대는 2(137), 김승돈 4(62), 권용혁 4(96), 서동준 2(172), 안민환 2(50), 염태천 2(125), 오승우 6(139), 이민재 2(164), 이영민 2(173), 이희성 2(203), 최재균 2(104), 황재혁 3(63)
- ▶ 45기 권기호 2(167), 김동호 2(175), 김성수 6(173), 박영일 2(170), 박지훈 2(118), 신유철 2(160), 이인권 2(115), 이진희 4(194), 정재현 2(171), 정진우 2(172), 채희용 2(150), 최충수 2(173)
- ▶ 46기 강승웅 4(322), 권지민 2(46), 김대영 2(73), 김명철 2(159), 김정렬 2(159), 김정호 2(276), 김정훈 4(29), 김진용 2(193), 박수만 2(65), 백인정 2(159), 송원상 4(266), 오기리 2(157), 이상윤 2(159), 이신화 6(429), 이수원 2(162), 이진철 2(150), 정종택 6(479), 조광연 2(97), 조수빈 2(121), 차승우 2(121), 표상열 2(159), 한영인 2(159), 홍한표 2(150), 황순창 2(155)

▶ **지면제한으로 47기~59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6월 26일 학교발전재단 이사장(이창효)은 3사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제 17대 총동문회장(박경중)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 단체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재단과 총동문회는 학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같으나 법적으로 설립목적과 고유역할이 다른 독립된 단체로서의 제한점과 차이점을 동문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6월 16일 학교발전재단은 생도대 체력증진 기자재 전달식을 생도대장실에서 가졌다. 전달식에는 재단 사무총장(안경일 교수), 사무국장과 생도대장, 생도대 대표간부가 참여하였다.

그동안 생도들의 자비로 구매하였던 요가매트(200개)와 LED암밴드(770개)를 재단 교육증진사업비 1천만원으로 구매해 전달하였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